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못 잊을 그리운 가슴첫는 12월, 조선인민군무장경비관을 찾았으면 위날리는 화는 기록 속에서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장성이 안겨 오고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보내시는 그의 뜨거운 격려가 가슴을 췄다.

『우리 당에 충실했던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김정일 1991. 2. 11.』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정생은 선군으로부터 왔다. 그이께서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시며 선군으로 인민의 행복을 지키시고 선군으로 이땅에 민족을 안아오시였으며 선군으로 백두산대국의 영광을 담보하는 만년기들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 선군대양이 신김정일장군, 선군조선의 영원한 힘이신 그이의 장장 수심상상에 달하는 선군혁명명도사, 우리 무장력을 무적질증의 백두산혁명강으로 키우시고 지위적해보유의 민족사적영업을 이루어진 영원한 령장을 더듬는 천만민군의 마음은 드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종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내 조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흥성드높은 백두산령에서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의 남다른 한생에서 1960년대를 특별히 중요한 시기였다.

기억도 새로운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부에서 유통경수제 106랑크사단에 평도의 자우를 세기 시작해 선군혁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운명적인 년대에 력사적인 자족들을

위대한 경도, 불멸의 업적

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리

남기시었다.

천출명장의 선군령도자육이 우리 조국에 세겨지면 1960년대는 얼마나 북집다단하였던가.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미제가 새 전쟁도발체동에 미처날뛰었고 나라안에서는 만당군벌 관료주의자들이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평도를 정면으로 거부해나섰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역사의 선언이 울려펴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흥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흥대를 제일시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세 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무모한 칼부림에 끝까지 흥대에 걸친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전사가 아니며 빅두산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미세 무장간첩『푸에블로』호 사건과 대형 간첩 비행기『EC-121』사건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들었다는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평도하신판, 인민군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예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인민군에 대한 당의 평도가 백방으로 강화된 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힘을 더웠다. 영원히 회고하시였다.

선군령장의 그날의 선례와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군의 그 길을 따라 우리 조국과 인민이 어떤 역사의 직위를 창조하게 될것인지 그때는 누구도 알게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단 한분 위대한 장군님의 아래우에 실려있었다. 우리 혁명이 가장 존중한 시기였을 때였으나 그때 장군님께서는 만명대에 높이 평가해나섰다.

선군령장이신 우리 장군님의 비범성은 줄임한 나날에 더욱 뚜렷

이 되어졌다.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체동과 비렬한 경제제재, 견제는 자연재해로 하여 활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1990년대,

피눈물의 해가 저물어가던 설설 그

남기시었다.

미구하여 어동이 깃불기 시작할무렵 어느 한 사격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동보총을 들고 사격좌석에 서계시였다.

그이의 군임하심 모습을 우리드는 일군들의 마음도 자동 경장하였다.

폭풍전야에도 같은 적장을 깨어 윤리는 자동보총의 편발사총총과 함께 목표를 정면으로 거부해나섰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역사의 선언이 울려펴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흥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흥대를 제일시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세 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무모한 칼부림에 끝까지 흥대에 걸친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전사가 아니며 빅두산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미세 무장간첩『푸에블로』호 사건과 대형 간첩 비행기『EC-121』사건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들었다는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을 승리에로 조직평도하신판, 인민군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예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날은 주제 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각 출초소에 역사적인 선군혁명 평도의 자유를 흐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저녁 일군들에게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끌고 나가자고 한다고

집무실에 말씀하시였다.

선군령장의 그날의 선례와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군의 그 길을 따라 우리 조국과 인민이 어떤 역사의 직위를 창조하게 될것인지 그때는 누구도 알게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단 한분 위대한 장군님의 아래우에 실려있었다.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체동과 비렬한 경제제재, 견제는 자연재해로 하여 활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1990년대,

피눈물의 해가 저물어가던 설설 그

남기시었다.

서 혁명무력의 강화와 국방공업발전의 길을 헤쳐나갔다. 방선 철거에서 뜨는 해를 맞이하시고 수 도밀리 자강강에서 밤하늘에 듣아난 거대한 위엄을 이룰수 있었다.

선제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 신호를 헤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한 과학자, 기술지도에게 드는 평가를 헤어나온 우리 장군님께서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의 신세대와 선군의지, 단대한 폭장으로 체대역의 온갖 도전을 맞았거나가시였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한으로 막을 내렸다.

1990년대 초기 핵무장들이로 활성으로 헤드르미 미제가 일으킨 소통과『특별사찰』의 강요는 준전시상태의 선포, 핵무기전과 방지조약에 서의 학교, 조미 회담을 거쳐 우리 장군님께서 올려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로 한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길은 날마다 보는 원주들이 칼을 빼고 원주들이 총을 내대는 초강경의 학교와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대사변들로 수놓아진 위대한 승리의 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주제 105년!

역사적인 시민과 세계적인 기적들로 충만된 뜻깊은 이례의 명마루에 서니 강희같은 추억과 충리자의 글자로 가슴을 세차게 설레인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의 위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2016년이 날렵 충격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 7 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끊임없이 정속화함으로 하여 올해의 정치적의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높지 않을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새해의 첫아침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리는 데에 감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떠나거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끌고 나온가며 할 전투적구호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영 우량하신 응성이 지금도 들려오고는 것 같다.

위대한 두병장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은 심장마다에 밟아 암은 천만군민은 새로운 출발점, 공격전지로 차지하고 당 제 7차대회를 위한 혁명적진군을 용기백화, 기세드높이 다그쳐나갔다.

당중앙이 정한 백승의 침로마다 푸른수면들로 세계를 친갈시 키며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죽풀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충진군으로 당 제 7차대회에 흐름하여 발표된 당중앙의 14 4%로 넘쳐 수행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7 0일전투는 승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정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 있는 실증이었으므로 천만군민의 열화 같은 애국정성의 뚜렷한 파시였다.

지난 5월 6일 전체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커다란 기대 속에 당 제 7차대회가 성대히 개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 7차대회를 전제 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을 풍성한 정당과 천체 대회를 수령한 당과 인민을 풍성한 정당과 인민의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서에서 충결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중앙의 봉드를 높이 달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이룩한 성과와 꿈꾸는 경향으로 힘차게 짜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암정으로 새에게 펴어인지면 대회장의 승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당 제 7차대회를 계기로 주체 조선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한 천체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의 두리에 당당히 강조되었으며 당중앙의 봉드를 높이 달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짜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암정으로 새에게 펴어인지면 대회장의 승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차대회를 정족하여 성내하게 전진한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구중시위는 경애하는

국의 력력이었으며 천체 당원들과 천만군민의 맥류의 카리스마로 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펼승시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강령으로 내새우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봉드를 반드시 펼쳐나서게 한 불멸의 기지였다.

당중앙이 열어놓은 승리의 전

객으로 따라 천만군민은 창조와 증산의 희성을 힘 있게 올리며 7 0일전투전선에서 영웅적인 만리마신들을 창조하였다. 천만군민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밤악하면 활수록 자자자강의 창조대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전국적인 전투계획이 공업생산적으로 1 4 4%로 넘쳐 수행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7 0일전투는 승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정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 있는 실증이었으므로 천만군민의 열화 같은 애국정성의 뚜렷한 파시였다.

지난 5월 6일 전체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커다란 기대 속에 당 제 7차대회가 성대히 개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차대회를 전제 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와 모든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 제 7 0일전투로 삼각같이 불려 일으키시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 위원회는 첫아침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열리는 데에 감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끌어내거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서에서 충결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중앙의 봉드를 높이 달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서에서 충결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중앙의 봉드를 높이 달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짜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암정으로 새에게 펴어인지면 대회장의 승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당 제 7차대회를 계기로 주체

조선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한 천체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의 두리에 당당히 강조되었으며 당중앙의 봉드를 높이 달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짜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암정으로 새에게 펴어인지면 대회장의 승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차대회를 정족하여 성내하게 전진한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구중시위는 경애하는

국의 력력이었으며 천체 당원들과 천만군민의 맥류의 카리스마로 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펼승시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강령으로 내새우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봉드를 반드시 펼쳐나서게 한 불멸의 기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차대회를 정족하여 전제 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와 모든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 제 7 0일전투로 삼각같이 불려 일으켰다.

그렇게 되니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더 높이 달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7 0일전투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당조직들이 벌린 친립직지사당사업의 위력을 더욱 높이 모색하고 향후에도 힘차게 짜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암정으로 새에게 펴어인지면 대회장의 승검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남도당위원회에서 당 제 7차대회를 계기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남도당위원회에서는 당 제 7차대회를 계기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은 7 0일전투와 함께 당원들과 천만군장병들은 당 제 7차대회를 계기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직지사당사업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단위들은 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제 없는 혁명적성과로 맞이할 것을 전국에 호소한 화제제철기념사업소와 평양성강릉 3호, 5호발전소 전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청립

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여나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理事会를 발동하여 새로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한 것은 우리 한민민의 치솟는 적분을 자아내고 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인 자위권행사를 전면부정하며 《제재 결의》를 무너린 것은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해역 제재 강화조치를 문제시하는 것은 실로 도적이 폐드는 적의의 파렴치한 양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 문제를 산행시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굽임없는 해공갈과 위협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유린하고 있는 장본인은 아름다운 미국과 파괴역적제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해안두포발시험을 《제재 결의》를 걸고들면 《제재 결의》를 무너린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의와 거부감, 국도의 오만성과 전횡의 발로이다.

더우기 해시첨과 판도로써 드탈사를 밟던 데온 저들은 하나도 문제시될것이

없고 우리의 해역제역 강화조치만이 비범이라는 것은 누구도 날구시킬 수 없는 남강도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고 우리를 고립압박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적 목적을 날구시킬 수 있는 남강도적인 권리이다.

우리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만족시켜놓고 생존권마저 밟살히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결의》라는 것을 단호히 규탄해 직격하는 것은 청년인 정당하다.

우리는 해안두포발시험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확장과 함께 미군과의 협정을 맺어야 하며 나라는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를 진행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한 것은 다행이 아닌 미국이다.

우리의 해안두포발시험은 미국과 박근혜역제당의 날로 가증되는 해공갈과 위협,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 적대용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인 해역제역 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인공구워성설사를 걸고들며 사상 류례없이

남강도적인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은 그것으로도 성자지 않아 군사적 압박을 통하여 우리를 어제불 흡심을 풀어냈다.

미국은 《제재 결의》를 무너린 것은 불법무

도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방란을 짓부시기 위한 초강대용조치들을 보다 라격력이 높은 각종 해안두포를 업마진지 마음먹은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수 있다. 미제가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험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제 없이 험으로 먼저 냉다 칠것이라는 선군조선의 선언은 결코 빛말이 아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방란을 짓부시기 위한 초강대용조치들을 보다 강도높이 탄핵적으로, 험악적으로 위태나가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장기적을 비롯한 혁전자사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그 후종국가 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파시즘, 위험성의 각종 전략전술 기들을 더욱 바싹 조이는 한편 해전

력을 향유하여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개하면서 국도의

건강국면을 조성하였다. 미국과 피씨들이